

포이엘 바하 哲學

- 『헤-겔』을紀念하는意味에서-

蘇哲仁

—

獨逸은 十九世紀의初期에이르기까지 專制王政及官僚國家의治下에잇섰다. 더욱累差의戰爭으로因하여 不少한困窮아래에서 苦難을當하였다. 그러나 英國에잇서서는 十八世紀中葉以來의 産業革命으로因하여 일즉이 産業發展에 努力하였스며 世界市場及植民地에對하여 主力을다하였다. 卞라서 在來의專制的思想은 이新興썰조와지-에잇서서는自由主義的思想으로 變하였다. 그런結果로 産業에잇서서는 自由競爭이始作되었다. 그것은必然的產物이다. 그러나獨逸에잇서서는 그影響이遲延되었다. 그것은 獨逸이 累差의戰爭關係, 盲目的國家主義와 奴婢的隸屬性에서 呻吟하였슬뿐만아니라 極度の 不自由와 經濟的窮乏에 싸젓기썰문이다. 그러나 그것이언제던지 永續하게두는것이아니다. 亦是漸次 그影響이獨逸에侵入하였스며 卞라서 農民解放運動이 일어났다. 더욱 「나폴레온」이 「모스크바」에서 大敗한後는 獨逸은 禍를免하게되었다스며 卞라서國民的協同의感情即國家統一에對한氣運이 漸次勃興하여오는新興獨逸썰조와지-間에 膨漲하게되었다. 이것이獨逸民族의解放運이다.

이와갓치 十九世紀初의 獨逸의잇서서의 新興썰조와지-의氣勢는旺盛하야 그들의綱領은 教會의獨斷代身に自由宗教的思想, 哲學的思辨代身に自然科學的研究 警察政治代身に經濟的刺戟과努力, 個人的王政代身に自由스러운憲法, 土地貴族의分裂代身に國民統合이였스며 그것이必然的으로 當時의 詩人學者及有識者間에 反映되었다. 卽獨逸에잇서서도 歐洲다른國家와갓치 썰조아지-努力으로因하여 在來의專制的思想이 自由主義的思想으로 轉換하였다. 그結果로 經濟的活動이 注視되며 自然科學에對한研究가 旺盛하게되었다.

以上에論한傾向은 哲學에서도볼수잇는 것이다. 그當時에잇서서는 哲學은 더욱그支配階級에잇서서 必要를늦기였스며 卞라서 그것을促進식키였다. 於是에 우리는 그當時의哲學에對하야 엇더케그當時에 社會相이反映되었스며 썰그當

時의 役割을 엿더케 하엿는가를 窺知할 수도 있다.

처음에 論한 바와 같치 十九世紀初까지 獨逸에 잇서서는 專制王政이 施行되엿다. 「헤-겔」은 十八世紀中葉부터 十九世紀初까지 이르렀다. 그런故로 「헤-겔」의 絶對的 理念의 觀念論에 잇서서의 最高理想으로써의 國家에 對한 理論도 當時의 國家에 家하謳歌를 表示한 것 이라고 하갸다. 卽 「헤-겔」은 第一로 家庭을 第二로 市民的 社會를 第三으로 絶對的 理想의 生活을 國家生活이라고 한 것이다. 그럼으로 封建制度의 最後는 獨逸에 잇서서는 「헤-겔」哲學을 觀念論의 發展의 最後의 階段으로 形成함이 아닐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歐洲諸國과 같치 獨逸은 中世紀以來의 宗教의 思想 그런데 「헤-겔」은 宗教를 神學과 同一視하엿다. 더욱 注意할 것은 그當時로 말하면 宗教의 勢力이 하엿스며 사라서 다음에 仔細히 論하겠지만 「포이엘싸흐」가 宗教를 批判함으로써 當時의 一般思想의 批判에 代한 것 아니 그것이 當時에 大影響을 준 것으로 보아서 얼마나 宗教의 勢力이 甚하엿스며 사라서 「헤-겔」도 그 影響을 受엿다는 것이다.

그러나 專制主義의 思想은 自由主義의 思想으로 變하엿다. 사라서 모든 思想家는 在來의 唯心論의 浪漫的 傾向으로부터 一變하여 實在主義의 傾向으로 轉換하엿다. 그럼으로 必然的으로 在來의 思考와 感覺의 位置를 顛倒시켰다. 그것을 哲學上으로 보면 唯心論이 唯物論으로 變함이다. 이것을 明白하게 表示하는 것이 「포이엘싸흐」의 哲學이다.

二

「포이엘싸흐」는 以上에 論한 社會思想의 傾向이 漸次濃厚하여 갈뿐만 아니라 長足의 進展하는 十九世紀初期에 잇서서 처음에는 神學을 工夫하엿다. 그러나 當時 柏林大學에 「헤-겔」이 잇음을 알고 父親에게 對하여 數次의 論爭을 한後 結果는 「헤-겔」哲學을 修學하게 되엿다. 그러나 「포이엘싸흐」는 最終까지 「헤-겔」哲學에 滿足할 수 업섯다. 그런故로 「포이엘싸흐」의 哲學的 思想은 二期로 分할 수 있다. 一八三九年에 「포이엘싸흐」는 「헤-겔哲學의 批判」을 發行하엿다. 그것으로서 思辨哲學一般은 勿論이요 自己의 先生과도 그 絶緣을 表明함이며 여기에서는 「헤-겔」主義의 解體와 克服이 展開되어 있다. 勿論 「포이엘싸흐」는 그前이라도 純全한 傳統的 「헤-겔主義」가 아니고 批判的 「헤-겔」主義엿다. 그러나 이 一八三九年으로써 그 思想은 轉換되엿다. 그리고 一八四一年의 「基督教의 本質」以後는 永永 「포이엘싸흐」의 哲學은 새 方向으로 變하고 말엿다. 더욱 氏의 著書 「基督教의 本質」은 當時에 얼마나 世上을 驚動시키엿는지 알지 못할만치 그 影響이 頗大하다. 사라서 「데보-린」이 「一八四八年의 革命前夜의 獨逸에 잇서서 「포이엘싸흐」의 演出한 役割은 佛蘭西唯物論者들이 一

七八九年前夜の佛蘭西에잇서서 演出한役割과갓다고함도 過言이아니다. 宗教의批判은 佛蘭西에잇서서나 獨逸에잇서서나 政治的意味를가지고있다.」고한것을보면 當時의獨逸에잇서서의 宗教的勢力이 얼마나하엿다는것을 推知할것이다. 거기에서 「포이엘싸흐」가 宗教及基督敎를批判하엿스며 그意味가那邊에잇스며 그影響이엇더하엿슬가하는것은 可知할것이다.

그런데本論에서는 그重大性을가진宗教批判에對하야서는特別히論할력화지아니하지만 自然히 相互關係되는것을注意하여둔다. 웨그러나하면 「포이엘싸흐」가 「헤-겔」을 批判함에잇서서 恒常그哲學과神學을關聯시켜서 論하엿기때문이다. 卽一例를들면 「絶對的精神은神學의 죽은精神이다. 그러나 그것이 「헤-겔」哲學에는 아즉도亡靈으로서彷徨하고있다.」고하엿다.

「포이엘싸흐」는 「헤-겔」의思辨哲學에잇서서의 主觀과 客觀고의關係를顛倒시켰다. 그러키때문에 「……思辨哲學을 다만顛倒만하면 隱蔽없는 純粹한 明白한眞理를把握한다.」고하엿다. 勿論 「헤-겔」에잇서서는 思惟와存在가同一하다고하는同一哲學을主張하엿지만 그同一哲學은 結局絶對的理念에서의 卽「歷史的으로보면 舊神學的=形而上學的인 有限이아닌 人間的이아닌 物質的이아닌 規正되여잇지아니한 性質을具有하지아니한本質 卽 本質이아닌것-活動이라고 認定된先世界的無에不過한」것에서의推論에不過하다. 換言하면 「헤-겔」哲學에잇서서잇 絶對者或은 無限者라고하는것은 一般的物件에서抽象하면서 이抽象과는다른것이라고하지만 그것은結局이것과同一한本質을가짐에不過한 것이다. 그런故로 「헤-겔」이 存在라고思惟한것은 엇던限定 或은 範疇下에서 思惟되는것인만큼 이範疇 限定을無視하면 다음에는 名稱박게 卽 空虛박게 남지아니할것이다. 이와갓치하야 思惟를論할때에도 「헤-겔」은 人間을前提로한思惟를 論하지아니하고 超越한人間外의思惟를論하엿다. 이와갓치 自然과의無關係한것을 論하면서 그것을다시自然에關係시킬려고함에잇서서의論法은如何한가. 卽 思惟와存在의統一에잇서서도 思辨哲學은다만虛稱의統一에不過할것이다. 그런故로 「헤-겔」哲學에는 「直接統一 直接確實性 直接眞理가없다.」

論理學에 잇서서도 「포이엘싸흐」는 「神學의神의本質이全部實在의卽全部規定된것 一般事物의有限性을觀念化한或은抽象的總體인것과갓치 論理學도亦是그러하다. 地上에서보이는 모든物件은 卽神學의天上에서도보인다.」고하엿다. 卽『「포이엘싸흐」는……論理學을體系的으로論하지아니하고-最高的最後의哲學이라고하지아니하고-다만哲學의歷史的結果로써觀察하엿다.』여기에서 「포이엘싸흐」는 「헤-겔」의 絶對者의論理學과相異하야 그의歷史性을明示하엿다. 이와갓튼 歷史性은 「포이엘싸흐」에잇서서는 다만論理學에만限

한것이아니다. 「포이엘싸흐」는 神을觀察함에잇서서도 以上에論한바와갓치 實在的 有限者의抽象的總體라고하엿스며 따라서 「神은發展의産物이라.」고 認定하엿다. 더욱 이神의變化의過程은 本體論的이아니고 心理的及人類學的本質을가지고잇는것을 言明하엿다.

여기에서 「포이엘싸흐」가 얼마나歷史性を重要視하엿스며 그歷史성에잇서 엇더케 論理學及神의概念이 明確히表示되며 그眞意의存在를把握할수잇는것을 明示함이다. 따라서 人間을論함에잇서서도 「헤-겔」과갓치 一般의人間을 論하지아니하엿다. 「헤-겔」은 人間은 思惟의能力이잇슴으로써 動物과區別이잇다고말하엿슬뿐이지 人間의感性的의性質을 論하지아니하엿다. 人間이란것은 「포이엘싸흐」에잇서서는 國家及社會의規定을맞으며 그規定맞음으로써 理性的으로된다는것을말하엿다. 처음에는 「포이엘싸흐」는 「헤-겔」과갓튼 이상을 가졌던것이나 漸次 思辨哲學으로부터 隔離하게되엿다. 그것은 「포이엘싸흐」는 「헤-겔」哲學에 잇서서는 自然과思惟 自然哲學과論理學의關係가根抵업는것을 自覺하엿기째무니다. 即思惟에잇서서의自然과 現實에잇서서의思惟外의自然과는 判異하엿기째문이다. 「헤-겔」의 神學的인것을 「포이엘싸흐」는 人間學的으로 說明하엿스며 따라서 「헤-겔」에잇서서는 思惟의 絕對性を認容하엿지만 「포이엘싸흐」는 「哲學의主觀的의起源과過程은 亦是 그의客觀的의過程과起源이다. 너는 性質을思惟하기前에 만히 性質을感受한다. 思惟보담도 受動이先行한다.」고하엿다. 그런故로 「眞實한 思辨或은哲學은 眞實한 더욱普遍的인 經驗以外의아모것도아니다.」 「哲學의 始端이란 神이 아니며 絕對者가아니며 絕對者或은 「이데-」의 述語로써存在도아니다. 即哲學의始初는 有限한것 規定된것 現實的인 것이다.」 「헤-겔」哲學의神學化에 對하여 思惟와存在의同一性에잇서서도 그神學化한것을 「포이엘싸흐」는 「近世의課題는 神의現實化와人間化-即神學이人間學으로轉化하며 解消함에잇다.」고한 것이다. 따라서 神에對한不滅性を말할새에도 그것을 絕對性으로論하지아니하고 「類」의概念과比較하엿다. 即「類」란것은 不滅한 것이다. 그런故로 個體로써의人間도 亦是 「類」의 記憶가운데잇서서는 不滅存在할수잇는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포이엘싸흐」는 自然을論할새에 「헤-겔」의精神對自然의 關係가아니다 以上에累差論한바와갓치 그分離한것을 다시 連結시키엿스며 그럼에는 「헤-겔」의方法을顛倒시킨 것이다. 自然에對하여서 「데칼트」는 純粹數學的=機械的의規定이라고 論結하엿지만 即 自然을죽은機械體로 轉化시키고말엇지만 「포이엘싸흐」는 現實을 「산」自然이라고觀察하엿스며 따라서 그것은 「라임넛츠」로 轉化한것이며 또 「데칼트」가 物心을二分함에對하

야 思惟의獨立的存在性を否認하며 모든 것을物質로歸着시키는 「쎄-큰」이나 「홉쓰」도轉化함이다.

그리고 自然은生命이며 發展이다. 物質은永久的運動과 作用中에잇는 것이다. 이것을볼쎄에 即運動에對한것은 「헤-겔」哲學에서도보는 것이다. 換言하면 「포이엘싸흐」는 「헤-겔」哲學에서 運動의原理即矛盾으로써의發展原理의차라서辨證法的方法을 「헤-겔」哲學에서 機承한 것이다.

三

「포이엘싸흐」에잇서서는 「思惟와有와의統一은 人間이統一의根抵 主體로써 把握될쎄에限해야만 意味잇는것이며 眞理다. 實在的本質만이 實在의事物을認識한다.」即「新哲學은 人間을 人間을土臺로하여서의自然까지包含하여서 哲學의唯一한 普遍的 最高의對象으로하는………普遍學이다.」그리고 「포이엘싸흐」는 自然을論하였지만 그自然에서 終結을보지못하고 人間으로 다시돌아오게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이엘싸흐」의哲學은 人間學을中心으로한것이며 差라서그것은 神學的形而上學的觀念論인 「헤-겔」의哲學과 辨證法的唯物論의 中間性을볼수있다. 그것은完全히 自然辨證法까지의 發展의中間階級인것을알것이다. 그러기때문에 「헤-겔」의哲學과갓치 그認識의 原理 그主體를自我나 絶對的인것 換言하면 抽象的精神인것이아니라 그것은 人間の現實的 全體的本質이다. 그런故로舊哲學에잇서서는 다만理性的인것만이眞理며 現實的이라고하면 「포이엘싸흐」에잇서서는 다만人間적인것만이眞理며 現實的인 것이다. 即人間은理性的의尺度가된다.

그리고 「헤-겔」에잇서서는 哲學의出發點은 主觀이였지만 「포이엘싸흐」에잇서서는 主觀과客觀과의關係다. 即「我」와「汝」의關係다. 그러나여기에서 「我」라고하는것은 全體的 實在의人間을意味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問題되는것은 「我」와「汝」의關係 即認識의問題에들어가게된다. 「포이엘싸흐」에잇서서는 認識의起源은 感性이다.

「포이엘싸흐」에잇서서는 感性은 自然과人間과의媒介者이다. 그러기때문에 「……感性은 眞實한 即思惟의作用을 맞던지 또는完成되지아니한 物質的인 것과 精神的인것과의實在의統一에不過하며 差라서 實在이라고하는것과同一한 것이다.」 「헤-겔」에잇서서는 勿論理性이 認識의起源이며 理性的本質으로써의概念은 即이것이唯一한現實이라고하였다. 더욱그것은 存在의原理였다. 故로 그것은 本體의存在의原理인 것이다. 그러나 以上에말한바와갓치 「포이엘싸흐」에잇서서는 그러치아니하다. 그것은 感性으로因하여外部世界即自然에接觸한다는 것이다. 「感性」으로써의結果는個別的이며 感性的이다. 差라서 思

惟는特殊한것으로부터 一般的인것에 個別的인것으로부터類인것에 具體的인것으로부터 抽象的인 것으로 上昇하는 것이다. 이것이 思辨哲學과는 相異한 것이다. 「포이엘싸흐」에依하면 「木」이라고하는抽象的種概念은 個別的感性的「木」으로부터의 抽象的過程을 經過한後의產物이기때문에 그째에는 그것은超感性的이다. 그러나 이「超感性」은다만對象의「形式」에만依한것이지 內容에까지關係한것은아니다. 卽그類概念 卽抽象的一般概念의根底에는 感性的具體的對象이 歷歷히 잇스며 사라져서「여러나무」가엎시는「木」이란것은 空虛한形式으로만 轉化할것이다.

여기에서 感性和 理性과의關係 卽이兩者는抽象的 對立의原理로써 相互對立하는것이아니다. 「포이엘싸흐」는兩者의對立物을克復시키엿스며 그것을具體的統一로形成시키엿다. 그리고 思惟의本質이 普遍的인限에잇서서 感性은思惟로 推移한다. 왜그러나하면「普遍的感官은 性이오普遍的感性은-精神性이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포이엘싸흐」는眞理 現實性 感性은同一하다고하엿스며 다만感性的本質만이 眞實한現實的本質이며 感官에依하여서만 眞實한意味에잇서서의 對象이把握된다고하엿다.

그외에 「포이엘싸흐」는 認識에잇서서 感性으로부터思惟까지 推移하는데對하여서는 相互交涉을 人間的悟性的發展條件이라생각하엿다. 그런故로 人間性이란것은 歷史的規定을맞는 것이다. 卽人間의本質이란것은 自然中에잇서서가아니오 社會에잇서서 歷史的發展의產物이다.哲學도 그最高 最后의 原理는人間과人間과의統一卽社會生活이다. 모든 것의 本質的關係를 形成시키는것은 다만이統一의方法과種類에依한다. 思考作用그것까지도 이統一으로써야만理解할수잇는 것이다. 여기에서 思辨哲學에잇서서 精神과自然을分離시키면서 說明하는때에亦是 主觀과客觀 思惟와存在의그同一性을主張하는것에잇서서의 不合理性卽 思惟를絕對적으로 說明하는 그形而上學的說明과 「포이엘싸흐」의 現實的인 것을 그것을具體性대로認識하는것과 사라져서 그의同一性을主張하는것과는 判異한 것이다. 그런故로 人間이 理解하는것으로말하며 對象의「對自의存在」이지 決코思惟의作用을맞는存在가아니다. 「포이엘싸흐」의 思惟는感官의媒介를通하여 存在에到達한다. 그런故로「포이엘싸흐」의 이現實的唯物論으로말하면 感覺論과는相異한 것이다.

四

「헤-겔」은 廣汎한範圍를包含하여 驚嘆할만한體系와 豊富한思想을展開시켰다. 그러나 그根本原理로말하면 以上에서 累差論述한것과갓치 그것은神學的이며 形而上學的要素를包含하엿다. 그思索의根本은 「精神」을絕對化함에

잇섯스며 그絶對化한 「정신」이主體가되며 그뿐만아니라그것은自然과分離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헤-겔」이獨逸哲學의最絶頂의結晶인것만치 光明잇는「方法」을남기였다. 그것은 「헤-겔」의思想을一貴한辨證法이다. 그러나 그것은勿論觀念論的辨證法이였다. 그런데 辨證法은 그自身이 絶對를否認하며發展을明示하며 運動의原則을說明하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쉴조와지-개大工業과競争과世界市場으로써 오랫동안(神聖化되어잇는 모든舊制度)를 實際에잇서서 消滅식킨것과갓치 辨證法哲學은 窮極的絶對的眞理며 거기에相應한人類의(絶對的諸關係)에關한觀念을全部消滅식키였다.」

「포이엘싸흐」는 「헤-겔」의 思索方法을 顛倒식켰다. 따라서 主觀과客觀思唯와存在의關係 따라서그統一이完成하게되였다. 現實性을主體로하엿스며 絶對的精神을 人間化하게되였다. 即受動的인 感受性을가진人間을 主體로하엿스며 感性으로서 思惟로推移한다고하였다. 그런故로 「포이엘싸흐」에잇서서는 自然의反映을論하지아니하고 自然으로부터 다시人間으로復歸하였다. 우리는 이것을볼때에 「포이엘싸흐」는 「헤-겔」의神學的 形而上學的觀念論을 根本的으로顛倒식켜서 批判하엿스며 그러나 그中에서辨證法을 取한것을알수 잇다. 即「포이엘싸흐」는 「헤-겔」의神學的 形而上學的哲學을 人間學的哲學으로轉換식키였다. 그리고辨證法을繼承하엿슴으로서 辨證法的唯物論이라고 하갓다. 그러나 아즉은 그完成한形態가아니고 그前階段으로볼것이다. 「포이엘싸흐」는 「헤-겔」에잇서서의 發生的批判的의缺陷을말하였다. 그러나 「포이엘싸흐」는 以上에論한바와갓치 人間學的이며 生物學的이며 自然主義的哲學이다.

여기에서 「맑스」는 그「포이엘싸흐」論에서 「포이엘싸흐」까지 包含한從來의 唯物論의主要한缺陷은 그와갓흔 唯物論은 現實性 對象의世界即外的 感官에依하여 知覺되는世界를 客觀又是直觀의形態에잇서서만觀察하고 具體의人間活動의形態에잇서서 實踐의形態에잇서서 觀察하지아니하며 主觀的으로觀察하지아니함에잇다.」고하였다. 即思惟가운데잇는客觀과 現實의具體의 客觀의 相異되는것을問題삼을려고하엿지만 人間の活動을 對象의活動으로보지못함에 自然主義의人間學的哲學이라고하는缺陷을가진 것이다. 따라서 實在的辨證法의理由도 여기에잇는 것이다. 더욱이와갓튼缺陷은 「포이엘싸흐」가人間을個人的으로 觀察함에잇다. 그뿐만아니라 人間の 受動性을 即發生的方面만重視하고 그能動的方面을보지못하며 따라서人間の自然에對한依屬만 注意하엿기때문이다. 그外에 「포이엘싸흐」는 個人의人間으로부터出發하엿고 生産組織으로써의 動的社會를出發點으로하지아니함에 그重大한缺陷이잇는 것이다. 그런故로 거기에는 完全한辨證法이 適用되지아니하였다. 即「環境은

곳人間으로因하여 變更되며 또教育者自身이 教育을맞지아니하면아니된다는 것을 忘却」하였기때문이다.

그런故로 「포이엘싸흐」는 「헤-겔」의哲學을批判함에 當하여 神學을批判한 것이다. 그런缺果로서의 「포이엘싸흐」의唯物論은 「디-츠겐」의 그것과 갓치 「맑스」 「엥겔스」의唯物辨證法的哲學에와서 더욱發展하였스며 더욱 그具體性を씩게되였다.